

## 4일 같았던 캐나다의 4주

[김아라]

간호학과 202423673, 강원대학교

이메일: [ladyk5@naver.com](mailto:ladyk5@naver.com)

2024학년도 여름학기 캐나다 빅토리아대학 단기해외어학연수 참가 후기

### 주제: 빅토리아대학교, 프로그램에 대해서

빅토리아 대학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생각을 참 많이 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이상의 것들을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 1. 레벨 테스트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 온라인으로 가야 할 교실을 안내합니다. 첫 수업은 레벨 테스트로 시작합니다. 레벨 테스트는 쓰기 시험과 말하기 시험으로 이루어집니다. 쓰기 시험은 자유롭게 자신의 이야기를 쓰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때 양은 자유이며, 자신의 문법 능력과 독해 능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말하기 시험입니다. 말하기 시험은 학생과 교수 3대 1로, 교수가 학생이 좋아하는 색, 음식 등을 가볍게 물어봅니다. 또

한 사진을 각각 다르게 나눠주어,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기분일지 물어봅니다. 이때 교수는 얼마나 매끄럽고, 문법을 잘 지키면서 말하는지와 악센트를 살핍니다.

## 2. 임시 반 배정

레벨 테스트의 첫 수업이 끝나면, 반이 배정됩니다. 이 반은 임시 반으로, 첫 임시 반의 수업을 진행하고 반의 학생이 잘 맞지 않는다고 교수가 판단하게 되면, 이 다음 수업은 본격적으로 반이 굳어지는 것이기에 그 학생을 알맞은 반으로 보내기 위해 교수는 메모를 합니다. 이 첫 임시 반의 수업은 그 역량이 두드러지도록, 말하기 수업으로 이루어집니다. 옆 친구와 자신의 취미, 관심사 등을 공유하는데, 이를 교수가 지켜보며 자연스럽게 메모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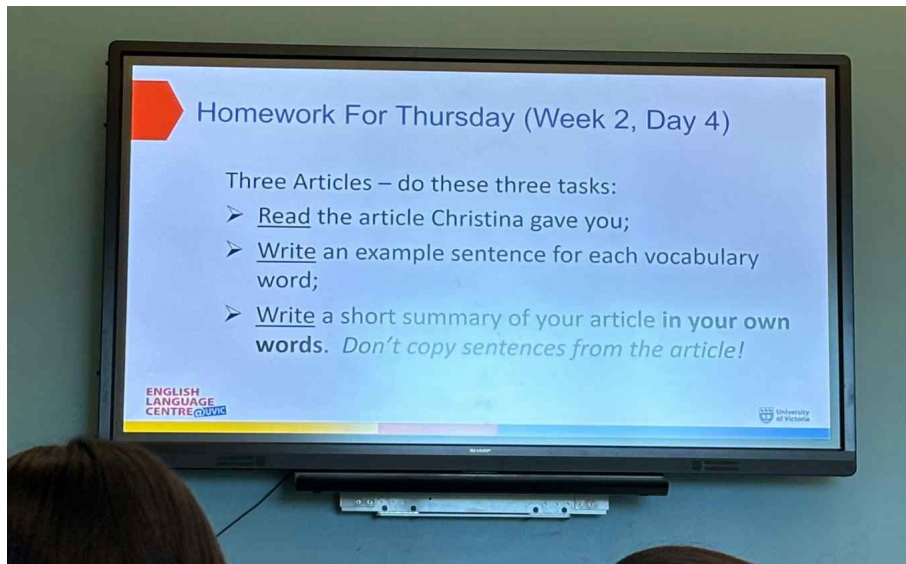
## 3. 정규 반 배정

이후 반이 아예 굳어지게 되고, 이 학생들과 함께 한 달을 보내게 됩니다. 제 경우, 반에 있는 학생들은 한국인, 일본인뿐이었지만 브라질 학생이 있는 반도 있다고 합니다.

## 4. 숙제

숙제는 정말 적은 편입니다. 수업은 총 2교시로 이루어지는데, 8시 30분부터 10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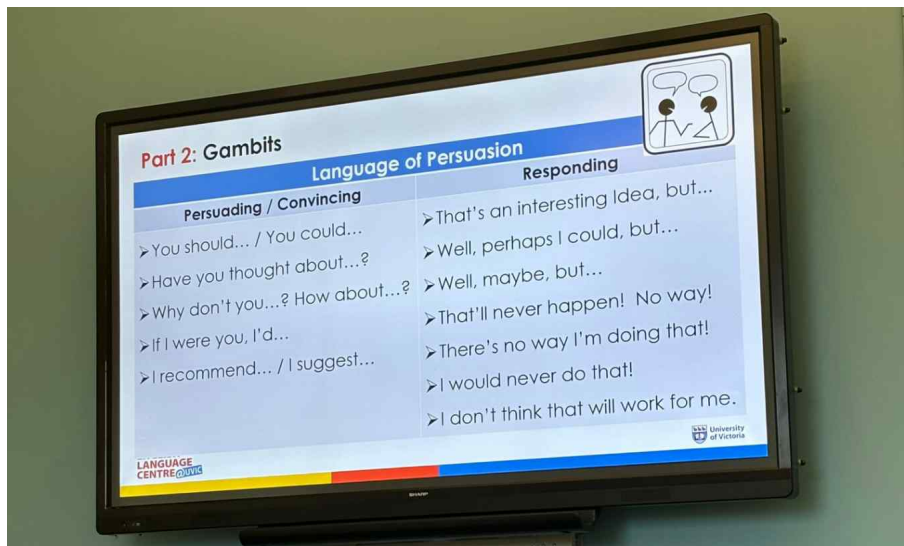
20분까지가 1교시, 10시 40분부터 12시 30분까지가 2교시입니다. 이가 길다고 여겨질 수 있겠지만, 저는 정말 수업이 즐거웠기 때문에 한번도 느리다고 느낀 적 없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1교시 수업과 2교시 수업은 교수가 다르기 때문에 숙제가 두 개가 생길 수도 있지만,



보시다시피 읽고 간단히 쓰는 숙제밖에 없기에 정말 부담 적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숙제가 다음 날 수업에 쓰이니 매일매일 성실히 해가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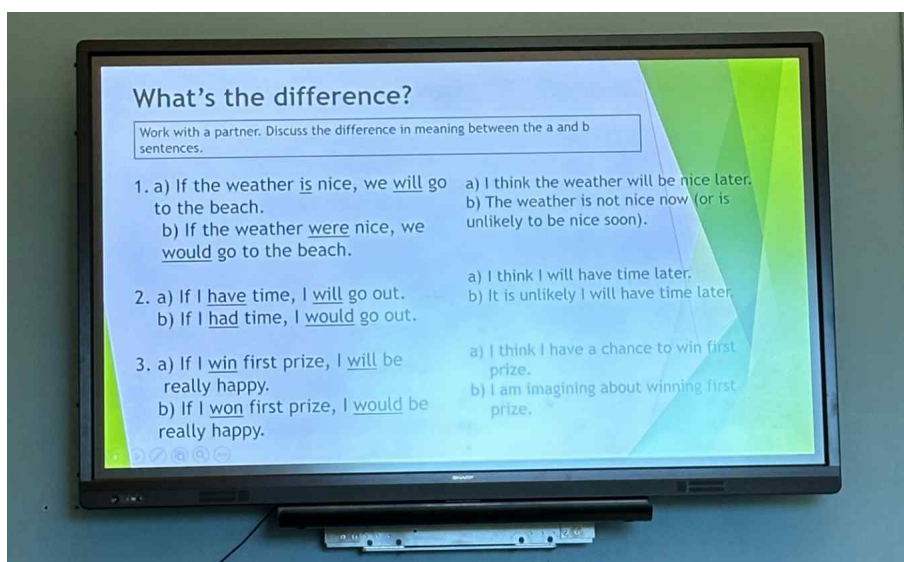
## 5. 수업 내용

수업의 내용은 정말 다양했습니다. 그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 나라의 기념품들을 포스터에 그리고, 직접 기념품 가게의 주인이 되어서 기념품들을 소개하는 수업입니다. 이를 위해 모둠이 주어지며, 모둠원들과 영어를 통해 대화를 이어 나가며 포스터에 그림과 설명을 적어야 합니다. 이가 끝나면, 교수는 학생에게 가게에서 할 수 있는 말들을 학습지를 통해 소개합니다.



특히 영어에서 쓸 수 있는 비유적인 표현이 들어간 말들을 새로 알 수 있어 새롭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이후 기념품 가게에서 직원과 많은 대화를 할 수 있었고, 모르는 것을 물어보거나 직원이 실제로 비유적인 표현을 쓰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 말들의 차이를 배웁니다.



대표적으로 will과 would의 차이를 배웁니다. 이를 가르쳐주시면서 교수의 경험을 섞어 말하는 것이 정말 인상깊었습니다. 이로 이 수업의 내용이 참 기억에 남았습니다.

세 번째로,

Avo

 Impromptu Speech Evaluation *Movi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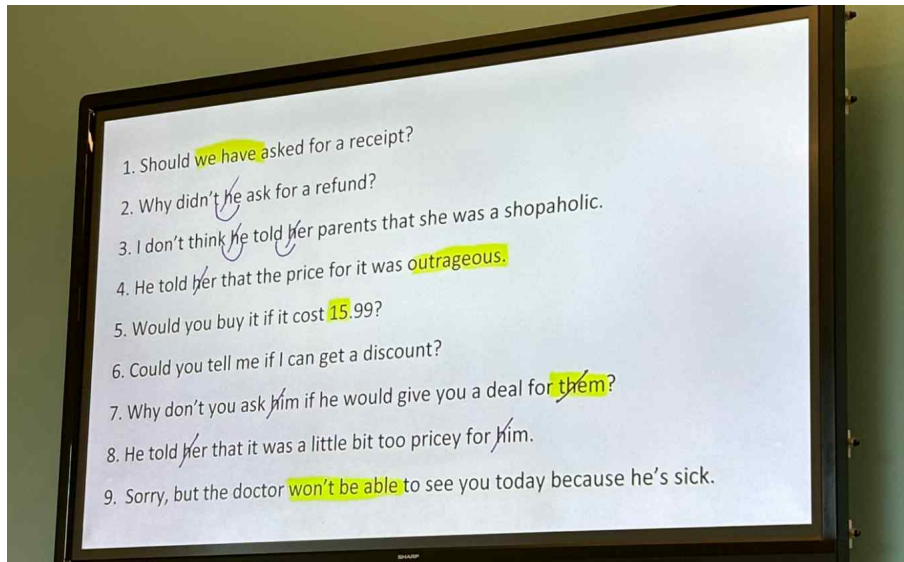
	4=Excellent	3=Very good	2=Good	1=Needs Improvement
<b>Organization</b> • Speech has a clear beginning, middle and end. ✓				④
<b>Content</b> • Topic was supported with at least 3 distinct details. ✓✓				④
<b>Delivery</b> • Speaker used eye contact with the audience. ✓ • Speaker spoke clearly and accurately.				④
<b>Time</b> • Speaker spoke for at least 1 min. ✓				④

16/16

Good job Avo!  
Great introduction + conclusion.  
- Used good descriptions.  
- Speech was organized we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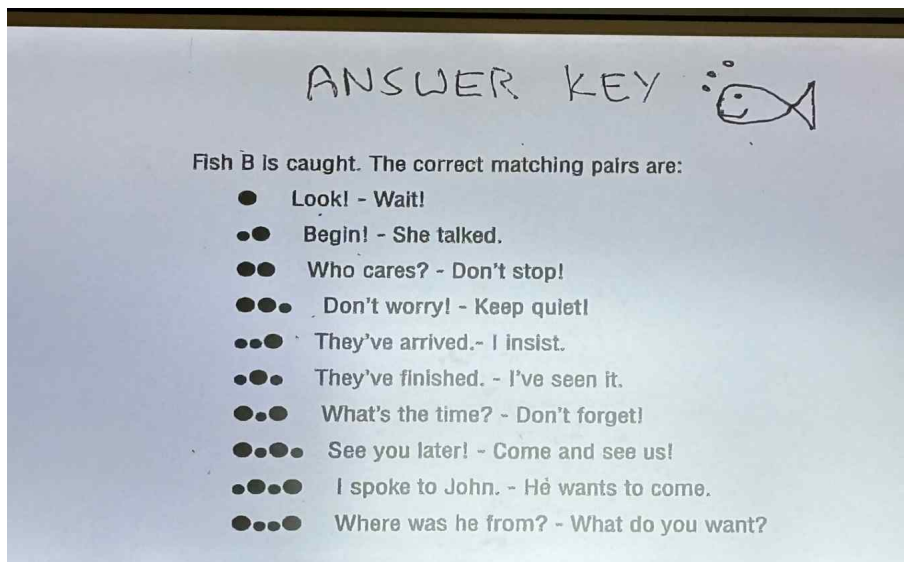
랜덤 주제 발표였습니다. 이 발표는 정말 갑작스럽게 진행되었습니다. 학생들마다 모두 다른 주제를 나누어 준 후, 15분의 준비를 거쳐 1분 발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서론, 본론, 결론의 구조를 잘 파악하고 있고, 영어로 잘 구사하는지 알아보는 발표 같았습니다. 대본을 보지 않고 말하는 발표였고, 15분의 준비였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성실히 이를 잘 수행하였습니다. 교수도 적극적인 자세로 학생들의 이야기에 질문을 하였고, 항상 저희가 접하지 못했을 경험을 덧붙이며 이 수업이 기억에 잘 남도록 유도했습니다.

네 번째로,



받아쓰기 수업이었습니다. 이는 물론 지루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수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원어민들은 모의고사처럼 천천히, 또박 또박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빠르게 말합니다. 이 받아쓰기는 그런 것을 반영한 받아쓰기로, 원어민 교수가 빠르게 말하는 문장을 받아쓰는 수업입니다. 학생들은 받아쓰기 후 토론을 통해 의견을 한 데로 모은 후, 교수의 정답지 설명을 듣습니다. 사진에 표시한 부분은 학생들이 많이 틀렸던 부분입니다. 교수는 저렇게 하나하나 틀린 부분을 짚으며 친절히 설명해줍니다. 또한, 2번의 he에 /표시가 되어 있는 이유는 저 부분은 발음이 잘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어민들은 저 부분을 잘 발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수업이 정말 좋았습니다. 해외에서 배울 수만 있는 지식이니깐요.

다섯 번째로, 악센트 수업입니다.



이는 저도 한국에서 수업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업을 원어민 교수가 진행하니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전 이 수업을 정말 캐나다 대학교에서 하는 수업 중 가장 효과적인 수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악센트는 원어민이나 해외에서 길게 거주한 사람만이 익숙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로, 이 또한 해외에서밖에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수업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냥 사진만 보면, 저 문장들이 왜 저 악센트를 가지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원어민 교수의 발음을 들으면 다릅니다. 악센트를 주는 부분에 음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이죠. 저도 처음에 학습지만 보고 급우와 문제를 풀 때는 어려웠지만, 교수의 발음과 함께하는 문제는 정말 쉬웠습니다.

## 6. 느낀점

정말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우연히 이 프로그램을 발견하여 신청하였는데, 정말 상상 이상의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친구들도 사귀게 되었고, 그로 많은 문화도 간

접적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브라질, 그리고 일본의 친구들을 사귀어 지금까지도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락에서도 영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제가 보아도 제 한 달 전의 영어 실력과는 비교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저는 원래 소극적인 성격이라 사람들에게 말을 잘 걸지 못했는데, 여러 나라의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자신감이 점점 생겨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 힘으로 친구들을 사귀고, 같이 사적으로 모임을 갖게 되면서 유학을 오길 잘했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기회가 된다면 일본 유학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같은 반이었던 일본인 학생들과 많이 친해지게 되었는데, 가나가와 대학에 다시 한번 유학을 가 궁금증이 많이 생긴 일본 문화를 몸소 체험해 보고 싶다고 많이 느꼈습니다. 결과적으로 캐나다 대학은 저에게 큰 전환점이 되어주었고, 해외의 첫 유학의 좋은 밑거름이 되었던 경험이었습니다.





